

생명에 대한 예의와 겸손이 아쉬운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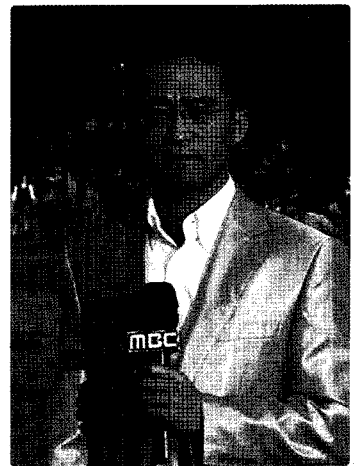
‘그까짓’ 환경?



알람이 울립니다.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출발 시각입니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가는 길입니다. 취재진이 탄 배는 그야말로 조각배입니다. 그날의 파고는 3, 4미터 정도. 실은 운항 허가가 났다는 사실이 기사거리가 되어야 할 만큼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3분이나 지났을까. 배에서 뛰어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가간 독도에서 나를 반긴 것은 눈보라였습니다. 눈이 포근한 게 아니라 따가울 수도 있다는 것을 난생 처음 알았습니다. 길도 없는 길. 가도 가도 흙과 모래 그리고 모래바람만 있는 길. 몽골 겨울사막의 한가운데에서는 고글과 두 겹의 내복, 특수 방한복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당치 않게도 미당선생의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 이란 시어가 떠올랐습니다. 참 좋아했던 표현인데 내가 함부로 쓸 말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남의 나라였지만 종군기자로 전장에 나설 때도, 질척한 눈두렁을 헤매거나 차가운 바닷물 속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저는 또 길을 나섭니다. 그곳에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신이 위험하거나 고단한 문제는 견뎌내면 그만입니다. 돌이켜보면 환경을 담당하는 기자생활이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 있고 또 즐거운 추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작 고민은 '환경'과 '개발'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터널 공사로 습지가 파괴된다는 논란을 빚었던 경남 양산의 천성산 생태계 공사가 끝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공사 전과 비교해 별로 변한 게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환경론자들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때도 갯벌을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면 지반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환경론자들은 이른바 '환경근본주의자'라고 공격을 받겠지요. 일견 타당한 지적이란 생각이 들고 '환경원리주의자' 역시 귀담아 들어야 할 쓴소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미 취재를 나설 때면 "그까짓 두루미 먹이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계양산 골프장 건설 문제를 취재하겠다고 하면 "골프장 좀 짓자는데 그까짓 나무 몇 그루가 뭐 그렇게 대수냐?"는 회사 수뇌부들의 힐난에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허 무 호 | MBC 환경전문기자

1994년 MBC 입사

보도국 생활과학부(현)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현)

환경의 날 국민포장 수상(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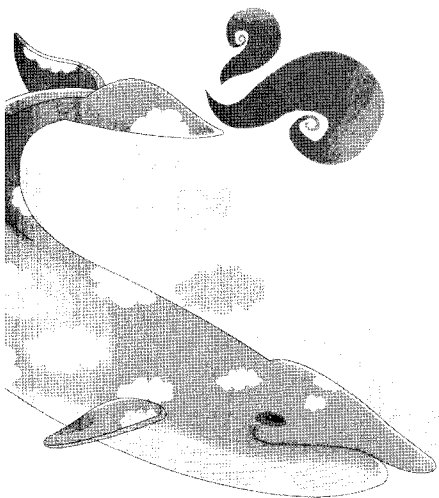
tel. 02-789-0792 | November@mbc.co.kr

‘그까짓’ 망상어 얘기나 해 볼까요. 한창훈선생에 따르면 붕어 비슷하게 생긴 녀석입니다. 암컷과 수컷이 생식기를 맞대고 교미를 한 다음 어미가 뱃속에서 새끼를 키운답니다. 봄철에 망상어 암컷을 잡으면 임신부처럼 배가 볼록합니다. 꼬물꼬물한 새끼들이 잔뜩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새끼들을 갖고 물회를 해서 먹었습니다. 요즘은 잘 먹지 않는답니다. 생명에 대한 예의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인 구달의 책을 보면 ‘그까짓’ 돌고래의 눈물이 나옵니다. 일본의 어떤 어부가 돌고래 잡이를 그만두는 대목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고래는 죽기 전에 눈물을 흘립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러 내리는데 어떻게 죽인다는 말입니까...”

2년 전 ‘그까짓’ 개구리를 키웠습니다. 당시 유치원을 다니던 막내딸 녀석이 5마리 올챙이를 얻어왔습니다. 꼬물거리던 그 녀석들에게 물고기 사료를 먹였더니 뒷다리가 생기고 앞다리가 나더니 개구리가 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개구리의 생태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데서 비롯됐습니다. 올챙이는 물속에 살지만 개구리는 양서류란 사실을 망각하고 수위 조절을 잘못해 모조리 익사시키고 말았습니다. 막내딸 녀석은 초보 얼치기 ‘환경기자’였던 못한 애비 탓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의 희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도록 운명 지워져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그러하다[自然]는 말처럼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고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으며, 모든 것이 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생명의 섭리, 그러면서도 조화와 균형 속에서 질서있게 돌아가는 생명과 자연의 모습은 위대하고 경이롭기만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이 늘어도 생명과 자연의 신비로움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도 결국은 자연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자연 앞에선 늘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닐 듯싶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리 애쓰지 않아도 오히려 괜한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태양은 찬란하게 떠오르고 알에서 태어난 새끼는 어미의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자랄 것이고 밤하늘의 은하수는 오늘도 황홀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언론은 우리 사회를 보는 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깨도 무겁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 사회는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만큼은 확고합니다.